

이철우 “위스키보다 오랜역사 ‘안동소주’ 명품주 만든다”

(경상북도 도지사)

경북, ‘안동소주 세계화 T/F’ 구성 김창수위스키증류소 26년까지 조성 홍보관 건립, 양조장 체험 등 진행 인플루언서 통해 홍보 전략 마련

경북도는 위스키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품질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안동소주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위스키류 수입액은 전년보다 52.2% 늘었다. 특히 스카치 위스키의 산업규모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조원을 기록했으며,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의 90%는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브랜드들은 위스키의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는 증류소 투어와 위스키 시음 등 체험상품을 지역의 명소와 연계해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관광 효자상품으로 정착시켰다.

중국의 마오타이도 고급 브랜드 유지와 다양한 소비자를 겨냥한 중저가 브랜드 발표하고, 일본은 2022년 1조 3300억 원의 주류를 수출했으며, 위스키 수출액은 5355억 원을 달성했다.

경북도의 지난해 전통주 출고액은



전통주 업체를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뉴스

143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84억 원보다 70% 이상 급증했다.

지난달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스카치 위스키협회 관계자를 만나고 위스키 제조업체와 증류장비 제조회사를 살피고 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스카치 위스키의 세계화 전략을 지역 전통주에 도입하고자 지난 11일 안동의 안동소주(대표 김연박)와 밀과노닐다(대

표 박성호)를 둘러봤다.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김창수위스키증류소는 2026년까지 안동 바이오산업단지에 200억 원을 투자해 위스키 제조공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위해 경북도, 안동시, 전통주 제조업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안동소주 세계

화 T/F’를 구성해 대표상품 개발, 안동소주의 산업화 및 세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동 명소에는 안동소주 홍보관을 건립하고, 술 품평회, 양조장 체험, 소주 시음행사 등을 진행하며, 양조장에 시음·체험 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동소주 원료, 도수, 숙성도 등 규격화된 도지사 인증 품질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주류 전문 바이어 초청 및 수출 상담 등으로 수출확대에 나서고 안동소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식품 가공 육성사업,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트로트 가수, 인플루언서 등을 간판으로 내세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 전략도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소주는 스카치위스키, 중국의 백주와 일본 청주들과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는 술인데 너무 저평가됐다. 한류를 활해 안동소주를 대한민국의 명품을 넘어 세계 명품주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경남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및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이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영덕군

취약계층 식료품 무상 제공

영덕군 기초푸드뱅크 사업이 지역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기부받은 식료품을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 나눔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개인 이용자를 우선으로 지원되며, 기부자에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영덕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4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아 관내 취약계층 주민 2558명과 사회복지시설 60여 곳에 전달했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mjngseol@

고창군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접수

전북 고창군이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향상, 식량산업 다변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일정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조정해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목표로 논 활용 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벼를 재배하던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전략작물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울산시

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점검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단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점검반이 편성돼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된다. 점검과 함께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KCC, 모둘화, 길천2차(2단계), 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단단지 등 12개 일반산단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인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주시, 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설명회.

장애인복지에 1580억 투입

광주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추진

광주시가 올해부터 4년간 1580억 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설계, 장애인친화도시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12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 설계를 통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장애인 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스마트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026년까지 4년간 1580억 원을 투자해 ‘삶에 행복을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 공동체 조성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 4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장애인 취업 지원과 권리 중

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 맞춤형 일자리 74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보호종료 장애아동과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조기 개입 원스톱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체육 기반을 견고히 한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최종중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광주모형을 전국화 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연계, 호남권 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2024 세계자원봉사대회’ 유치

80여 개국 1400여명 방문

부산시는 자원봉사 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2024세계자원봉사대회(2024 World Volunteer Conference)’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행사 주최 기관인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에 세계대회 부산 유치 의사를 밝힌 후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산관광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IAVE (International Associati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on for Volunteer Effort)는 자원봉사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민간 기구로 1970년 창립해 현재 80여 개국의 개인, 단체, 기업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유럽 연합 비영리 단체(NGO) 등과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유치로 2024 세계자원봉사대회는 2024년 11월 중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며, 80여 개국 1400여 명의 자원봉사 리더와 관계자들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소상공인에 5년간 3조3000억 보증

중·저신용자 위주 보증 지원

전남도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5년간 3조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마련을 위해 5년간 300억원을 전남신

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매년 6600억원씩, 2027년까지 3조 3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실시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경남, 올 중대재해 예방·감축 원년 집중

경남도는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감축 원년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경남에서는 중대재해 59건이 발생해

92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 중 57명이 사망했다. 앞서 2021년보다 12건이 감소하고, 사망자가 13명 줄었지만, 지난해 창원과 김해에서 있었던 독성물질 사건으로 재해자 수는 18명이나 증가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